

가전·자동차의 힘...코로나에도 광주 수출 '선방'

지난해 137억달러 실적 올려...전년보다 2.7% 증가 전남, 석유수요 감소에 270억7900만 달러...17% ↓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졌지만 지난해 광주지역 수출은 오히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과 자동차, 자동차 등 광주 중추 산업계가 양호한 성적을 거두면서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선방'을 한 반면, 석유 수요가 감소하고 저유가 흐름이 계속됨에 따라 석유화학 업계를 비롯한 전남지역 수출은 내리막 길을 면치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460억200만 달러) 대비 11.2% 감소한 408억5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295억200만 달러로 전년 387억700만 달러보다 23.8%나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전년(72억9500만 달러)과 비교해 55.6%나 증가한 113억4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출도 줄었으나 수입

이 더 크게 줄어든 '불황형 흑자'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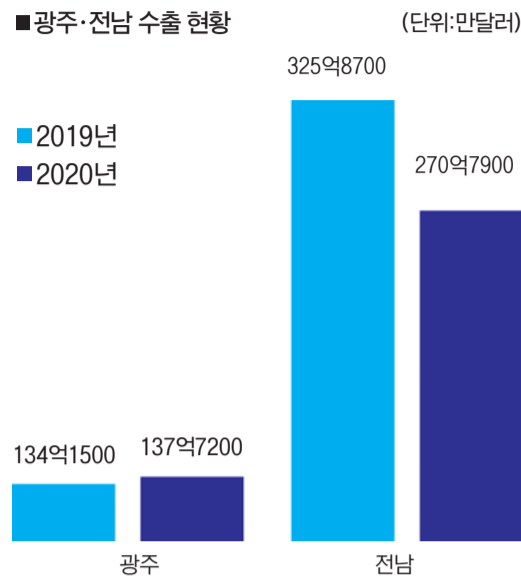
광주·전남의 전체적인 수출이 줄었지만, 광주와 전남은 엇갈린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우선 광주는 지난 한 해 총 137억720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해 전년(134억1500만 달러) 대비 2.7% 증가했다.

광주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수출길이 막히는 등 한때 주요 산업계가 위기에 빠졌지만, 7월 이후 전년 동기대비 수출 증가세가 6개월 연속 이어지며 상황이 역전됐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냉장고 등 가전을 필두로, 금호타이어의 타이어, 기아 광주공장의 승용차 등 주요 산업계의 주력 품목 수출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우선 냉장고 수출이 지난해 9억7450만1000달러



로, 전년(7억7672만9000달러)보다 25.46% 증가했다. 냉장고 수출 성장에 힘입어 가전과 반도체 등 '전기·전자제품' 품목이 56억2803만 달러에서 60억9814만3000달러로 8.35% 성장세를 보였다. 이밖에 승용차 수출은 48억3494만 달러에서 50

억7805만9000달러로 5.03% 증가하는 등 '수송장비' 수출도 전년(54억6078만4000달러) 대비 3.11% 증가한 56억3062만4000달러를 기록했다. 이어지는 지난해 4억7854만4000달러 수출이 이뤄져 전년(4억8813만6000달러)보다 1.96% 소폭 하락해 지역 경제계의 우려에 비해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와 달리 전남은 지난해 총 수출액이 270억7900만 달러로 전년(325만8700만 달러) 대비 16.9%나 감소했다. 전남의 주력 수출품인 석유화학 제품이 코로나19 사태로 수송수요가 감소와 단가 하락 등 깊은 수렁에 빠지면서 타격이 컸다.

전남의 '원료 및 연료' 품목 수출은 지난해 83억8887만4000달러로 전년(126억7433만 달러)에 비해 무려 33.81%나 급감했다.

또 다른 주력 품목인 화장품 역시 126억0539만9000달러에서 110억5520만 달러로 12.3%나 줄었고, 이밖에 철강제품도 37억4365만2000달러에서 32억5527만5000달러로 13%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수출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광주 코로나 의료진 힘내세요"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오른쪽)은 지난 13일 광주시청을 찾아 이용섭(가운데) 광주시장에 코로나19의 료진을 위해 임직원들이 직접 만든 2500만원 상당 '응원꾸러미' 500 상자를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31년만에 '車' 떴 기아

사명 변경...제조업 넘어 혁신 모빌리티로 영역 확장

기아자동차가 사명에서 자동차를 떼 '기아'로 이름을 바꾸고 새출발에 나선다.

기아는 지난 15일 유튜브와 글로벌 브랜드 웹사이트를 통해 '뉴 기아 브랜드 쇼케이스'를 열고 새 사명과 함께 브랜드 지향점,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기아의 사명 변경은 1990년 기아산업에서 기아차로 바뀐지 31년 만이다.

기아는 사명에서 자동차를 빼면서 기존 제조업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혁신적인 모빌리티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고객들의 삶에 가치를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새로운 브랜드 지향점은 '이동과 움직임'(Movement)으로, 인류 진화의 기원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위치에서 이동하고 움직임을으로써 새로운 곳을 찾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경험을 하며 영감(Inspiration)을 얻는 것처럼 고객에게 다양한 이동성을 제공하고 고객의 삶

에 영감과 여유를 선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지난해 초 발표한 중장기 사업 전략 '플랜 S'를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차와 모빌리티 솔루션, 모빌리티 서비스, 목적 기반 차량(PBV)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기아의 중장기 전략이다.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영역으로의 사업 확장을 위해 청정 에너지와 재활용 소재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생산 체제를 갖춘 계획으로, 전기차 대중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27년까지 7개의 새로운 전용 전기차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단순하게 회사의 이름과 로고 디자인을 바꾼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의 확장을 통해 전세계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박기용 기자 pboxer@

뉴 기아 브랜드 쇼케이스에서 기아 송호성 사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기아 제공>

NCS 기업활용 컨설팅 광주상의 참여기업 모집

광주상공회의소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을 원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NCS는 산업협정의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으로, 기업에서 NCS를 도입하게 되면 직무 중심의 인사 배치와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해진다. 또 효율적인 인재채용과 재직자 역량강화 프로세스 등에 따른 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NCS 컨설팅 사업은 NCS 도입과 활용 등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30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업종별 외부 전문가 2명이 해당기업 관계자와 전체적인 직무현황을 분석, 이를 바탕으로 NCS에 기반한 직무기술서 개발과 역량 기반의 인사체계 및 채용·교육훈련 방안 등을 설계하게 된다. 참여신청은 광주상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업계 책임경영 '바람' 한전 ESG 위원회 신설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공기업 한국전력은 관련 기구를 신설했다.

한국전력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제1차 ESG 위원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ESG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 산하에 신설됐다. 김좌관 이사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최승국 이사, 방수만 이사 등 3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ESG 관련 주요 경영 현안을 심의하고, ESG 경영전략 및 관련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 자문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로또복권 (제946회)

당첨 번호						2등 보너스숫자
9	18	19	30	34	40	20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157,656,182		11		
2	5개 숫자+ 보너스숫자일치	55,714,127		71		
3	5개 숫자일치	1,341,371		2,949		
4	4개 숫자일치	50,000		138,433		
5	3개 숫자일치	5,000		2,224,563		

12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5060 新중년
인생 3모작을 꿈꾼다

- 백세 시대 남은 시간을 새롭게
- 배움으로 새 도전의 힘을 얻는다
- 도전의 성취 신중년
- 유튜브 스타 신중년

기획-TREND 2021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
"거침없이 피보팅하라"

문화를 품은 건축물 ⑤
한옥의 넉넉함 품은 화이트 큐브
아모레퍼시픽미술관

클릭, 문화현장 ④
시민과 미디어아트 만나는
양림동의 새 복합문화공간
이이남스튜디오

김정영의 바우하우스 이야기 ⑥
주관성 강조한 괴테의 색채론
젊은 칸딘스키의 색채론

예향 초대석
치유의 글 쓰는 정신과 의사
문요한
"몸과마음이 유연해져야 합니다"

문학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
기형도의 성정 느껴지는 공간
광명 기형도 문학관

학제의 전시
아시아문화국제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

학제의 문화공간
아마추어 예술인을 위한 공간
'벨라 151'

철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

왕인의 '예술가의 한끼' ⑥
'학단의 테러리스트' 황창배,
요리도 '카레 된장찌개' 파격

베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⑥
스크린 스타를 드라마 복귀
열풍 까닭은?

학제의 문화현장
세계인이 감탄한
제주 '생각하는 정원'

예향이 만난 이 사람
성실함으로 주목받는 KIA 볼펜포수 이동건

사육사육 담도 한 바퀴루장성

경으며 문향 사책,
자서 힐링 여행

트리킹 활동과 대표 서원
레드향 사인 머스킷